Institute of Future Distance Education
미래 고등평생교육과 원격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미래원격교육연구원

IFDE

원격고등평생교육

국내정책동향

2024
Vol
01

정책동향1

2024년도 교육부 예산 및 고등·평생교육분야 중점 투자 방향

정책동향2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 및 특징

정책과제

방송대 교양과정 개선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4년 교육부 예산 및 고등·평생교육분야 중점 투자 방향

★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95조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부 예산 및 고등·평생교육 분야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24년 고등·평생교육 정책사업 추진의 향방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 국회 본회의(2023.12.21.)에서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

– 이 가운데 고등교육 부문의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9,637억원 증액**된 **14조 4,772억원(7.1% 증가)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245억원 감액**된 **1조 2,1627억원(15.6% 감소),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는 **'23년 9.3조원에서 '24년에는 15조원으로 5.6조원**이 증액

〈 2024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단위: 억원, %)

구 분	'23년	'24년			전년대비 증감(D-A)	
	본예산(A)	정부안(B)	국회증감(C)	확정(D)		%
▣ 총지출	**1,019,979**	**956,254**	**1,634**	**957,888**	**△62,091**	**△6.1**
◦ 예산	959,936	894,492	1,654	896,146	△63,790	△6.6
◦ 기금	60,043	61,762	△20	61,742	1,699	2.8
【교육분야】	**960,158**	**894,031**	**1,634**	**895,665**	**△64,493**	**△6.7**
▪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9,120**	**737,406**	**△116**	**737,291**	**△71,829**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88,859**	△127	688,732	△68,875	△9.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	**32,106**	-	32,106	△2,594	△7.5
▪ 고등교육	**135,135**	**142,947**	**1,825**	**144,772**	**9,637**	**7.1**
▪ 평생·직업교육	**14,407**	**12,238**	**△75**	**12,162**	**△2,245**	**△15.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3,773**	**148,567**	1,845	150,412	56,639	60.4
▪ 교육일반	1,496	1,440	-	1,440	△56	△3.7
【사회복지분야】	**59,821**	**62,223**	**-**	**62,223**	**2,402**	**4.0**
▪ 기초생활보장	1,573	1,604	-	1,604	31	2.0
▪ 공적연금	58,248	60,619	-	60,619	2,371	4.1

2 고등·평생교육분야 예산 중점 투자 방향

-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

-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6조 원 증액하여 15조 원 규모로 편성
  -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증액

-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 원 규모에서 2조 3,878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 원 증액**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
  -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 유도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2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
  - 이관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

3 방송대 관련 사업 추진 시 시사점

- **2024년 대학혁신지원의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무전공 선발 및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자율전공선택제 시행 등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을 권고**할 것이라 예고
  - 국립대육성사업 등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시 교육부가 권고하는 무전공제 선발 등의 전공 선택 확대 방안에 대해 방송대가 취해야 할 입장과 추진 가능한 정책 방안 및 제도에 관한 모색 필요

- **지역혁신,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 대학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 및 재정 지원이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평생교육 관련 사업 참여시 지역과 대학이 연계되는 방송대 특화의 혁신모델에 대한 고민도 필요**

*〈자료출처〉 교육부(2023.12.21.). 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원 확정. 교육부 보도자료

2023년 글로컬대학 선정 결과 및 특징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3일에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1월 본지정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은 대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컬대학으로 본지정된 10개 대학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학 혁신의 상을 파악하고, 우리 대학이 고민해야 할 대학 혁신의 과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 글로컬대학 프로젝트 개요

- (의의)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 지원
- (지정규모) **2023년 10개 내외 →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
  ※ 2023년, 2024년 10개 내외 지정, 2025년, 2026년 5개 내외 지정
- (지정대상)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국립대학육성사업,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
  ※ 대학은 단독 신청 또는 지원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 가능
- (지원사항)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지정방식)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 최종 심의

〈2023년 본지정 글로컬대학〉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2 글로컬대학의 특징

1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1도1국립대를 통한 글로컬 대학도시 구현

특징

- 하나의 거버넌스 하에 **특성화된 4개 캠퍼스 연계, 강원권을 포괄**하는 **지역거점대학 모델**('26 1도1국립대 실현)
- **지역밀착형 캠퍼스 특성화** 및 **공동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 춘천(교육·연구), 원주(산학협력), 강릉(지학연협력), 삼척(지역산업)

- **학생선택권** 확대를 위한 **벽 허물기*** 및 **학사구조 재구조화**

* 벽 허물기 : 120개 전공(65.6%), 모집정원 4,090명(65.9%) 참여

** 캠퍼스 경계를 초월한 탑글래스 통합학과 운영(캠퍼스별 정원, 동일 교육과정, 통합 졸업단위)

- 권역별 문제해결을 위한 **캠퍼스 특화 리빙랩**,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이디어랩** 운영 등 산학협력 교육·연구 활성화

2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방산분야 글로컬 선도대학

특징

-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 혁신모델** 제시(**우주항공대학 신설**)

※ 등록금, 기숙사비 전원 전액 지원, 국내외 인턴 및 선진대학 파견, 공동프로젝트 지원 / 항공우주공학부 무제한 전과 허용 / 졸업생 50% 이상 우주항공 진로 목표

- 대학원, 연구소 통합조직인 **경남형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 등으로 우주항공방산분야 **연구역량** 강화

※ 참여교원 및 대학원생은 대학원과 연구센터에 중복 소속, 융합연구 수행

- 우주항공방산분야 등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경남지역 전문대학과의 연계체제** 구축

※ 지역 전문대학 학생의 경상국립대 우주공학부 무제한 편입학, 현장 활용기술 단기 취득 과정 운영, 우주항공방산 관련 학점은행제 도입 등

3 부산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

특징

-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맞춰 AI·디지털 역량을 갖춘 **새로운 종합교원양성대학 혁신모델** 제시(양 대학 **교육기능 일원화하여 교육중점대학** 구축)

※ 연제캠퍼스(현 부산교대)에 교육기능 수행기관의 이전·재배치

- 미래형 강의실로의 공간혁신, 첨단 교육기자재를 구비한 **교육 전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최첨단 교육공원 '**KREON 에듀테마파크**' 조성

* 온·오프라인 하이플렉스(Hyflex) 강의실, 대·소규모 수업행동 분석실, 테마형 교육실습실, 에듀테크도서관 등

- **디지털 선도학교와 연계** 등을 통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 **지자체·지역 교육청·기업** 등과 함께 **에듀테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에듀테크 거점** 육성

4 순천대학교: 특화 분야 강소지역기업 육성대학으로 도약

특징

- 중소기업, 농업 중심의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분야**에 맞춰 **대학 학사구조**를 과감하게 전면 개편
- 5개 단과대학 폐지, **지역 특화분야별 융합교육스쿨***로 개편

* (기존) 생명산업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예술대학, 공과대학, 미래융합대학 → (개편) 스마트팜 스쿨, 애니메이션 스쿨, 코스모스스쿨(우주항공·첨단소재), 평생교육스쿨

- **3대 특화분야**에 정원 **75.4%** 배정('25) 및 **분야별 무학과 광역모집**
-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2+1+1 교육모델***, **실무형 트랙제****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 2년(진로·전공 선택)+1년(과정간 신규진입)+1년(세부진로) / ** 취업/창업/진학트랙

5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

특징

- **지방정부**와 **국립대학**이 주도적으로 **대학·연구기관·지역 특화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공형 대학혁신 모델** 도출
- **국·공립대 통합**('25.3 출범) + **경상북도 7개 교육·연구기관* 통합 운영 → 공공형 대학 혁신모델**

*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환경연수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북인재개발원, 경북축산기술연구소

- **인문학을 중점분야**로 선정. 순수 인문학과 융합 인문학을 아우르는 **인문사회·디지털 인재양성**
- **100% 완전 자유전과제**('24) → **학과 단위 폐지**('25) → **학생 선택권** 강화

6 울산대학교: 지산학 일체형 대학

특징

- **대학이 지역 산업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 혁신 모델 제안
-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캠퍼스(UbiCam)** 설치

※ 디지털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기업재직자 재교육, 평생교육 등

-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신산업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 Complex** 설립·운영, **메디컬캠퍼스 혁신파크 울림(Ulim)** 조성
- **대학-지자체-산업계**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산업육성기금**' 조성(1,000억 원 규모)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
- **융합학부, 無학과, 모듈기반 전공트랙**으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

※ (기존) 10개 단과대학, 51개 학부(과) → 6개 단과대학, 16개 융합학부 / '25년부터 의과대학 등을 제외한 모집정원 100% 융합학부 모집 / 자유로운 전공트랙 운영

- **학부 정원 감축** 등을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대학원**을 신설, **UNIST**와 연구연량을 결합하여 **공동 학위과정** 운영

7 전북대학교: 전북과 지역대학을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

특징

- 대학-연구기관 융합 공동캠퍼스를 구성하여 **지역기업 수요기반 산·학·연 융합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 전북대, 핵심연구기관, 기업, 전라북도가 협력하는 산·학·연 융합 협의체 구성·운영

- **기초 지자체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인 '**JBNU 지역발전연구원**' 설립(지역별 연구소 4개 이상)
- **학과·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전학·전과 비율 확대, 다전공 이수 기회 확대, 학생 설계 교육과정 강화 등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 모집단위 : (현재) 106개 → ('25학년도) 42개 → ('28학년도) 24개

※ 다학제 융·복합 모듈 전공, 지역 전문인재 양성 융합전공 등 탄력적 학사 운영

- **온·오프라인 국제캠퍼스(센터)** 설립 및 **학위과정 다양화**, 유학생 현장실습·인턴제 도입 등 **정주 지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 온·오프라인 국제캠퍼스(센터)와 국내 캠퍼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8 충북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특징

- 충북대 + 한국교통대 통합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별 특성화**(중복학과 조정 및 캠퍼스 재배치)
- **지·산·학·연의 유기적 공유·협업**에 필요한 정보 공유, LMS 및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Quad Helix Hub 플랫폼**' 구축
- **대학과 산업체가 협업**하여 **현장밀착형 기술 개발** 및 **인재**를 양성하는 **Open-Shared 캠퍼스** 구축
- **자율전공학부 확대** 및 **무전공제** 도입('25. 9.4% → '27. 20%), **무제한 전과제** 및 **다전공학기제** 등 도입
- 해외에 **K-철도 교육모델**을 수출하고, **K-컬처 기반 융합국제대학** 설치, **글로벌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9 포항공과대학교: 지역에 뿌리내려, 세계로 뻗어나가 열매 맺는 글로컬대학

특징

- **현장성·전문성 높은 수요자**(취업 희망자, 재직자 등)를 대상으로 **개방적 비학위과정** 운영(환동해 글로컬 연합 아카데미)

※ 이차전지(포스코퓨처엠), 한국수력원자력 교육과정 개방·운영 등

- **신입생 전원 무학과** 선발 유지 및 **JA 교원 100%** 추진으로 학문 간 벽 허물기 및 교육·연구 강화, **Off-Campus 학기·학위제** 등 운영
-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우선 추진할 **강점 분야 선정** 및 **R&D 역량 집중**, 연구개발부터 제조·양산, 글로벌화까지 **지역기업 통합 지원**
- **창업교육**(경북 스타트업 아카데미)-**사업화***(made by POSTECH)-**인프라**(scale-up ground) 등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 구축

* 전략산업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상용화 지원 펀딩 프로그램 "POSTECH Tech Innovation Grant' 조성·운영 등

10 한림대학교: AI 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

특징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AI 기반으로 능동적 학습과 초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교육혁신 모델** 제시
- 학과 중심 체제에서 **3대 융합 클러스터(의료·바이오, 인문·사회, AI)** 중심 체제로 대학의 운영 구조 탈바꿈
- **융합 클러스터 중심**의 **모집단위 광역화**, 학생의 **전공 자율 선택권** 보장
- AI 기반의 대학교육 대전환을 구현할 '**AI 에듀테크 센터**' 설립 및 콘텐츠, 강의, 평가 전 단계에서 적용할 **AI 교육 솔루션** 개발

※ '32년까지 전체 교과목의 20%를 AI 교수가, 50%를 AI 튜터 담당 추진

※ 포럼형 실시간 온라인 수업 플랫폼 구축, AI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3 관련 정책 추진의 시사점

○ 국내 유일의 국립원격대학이자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 방송대 교육혁신에 대한 방향성 고민 필요

- 글로컬대학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과감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립원격대학이자 고등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갖는 방송대는 어떤 발전의 방향성을 고려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혁신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대학 당국 및 구성원의 고민 필요

○ 방송대의 발전 및 혁신과제 탐색을 통해 정책·재정 지원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

- 대학 재정 지원에서 교육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 향후 방송대가 추구해야 할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교육부 또는 지자체 등과 전략적 관계 구축 필요

*〈자료출처〉 교육부(2023.11.13.).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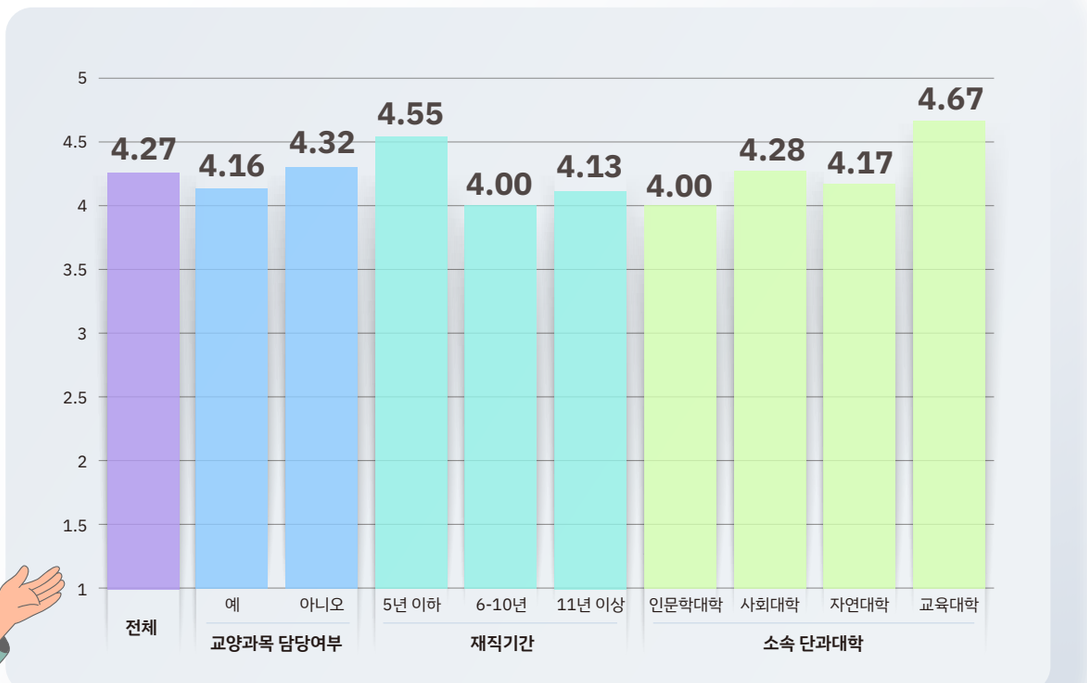
방송대 교양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

★ 방송대 교양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체계적인 교양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양교육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대 교양교육 개선의 주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방송대 교양교육 개선방안 연구(2022, 과제책임자: 주형선 선임연구위원)」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 및 영역', '조직체계', '교양교과목 개발 관련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해 교원 인식조사 시행(조사 참여자 56명, 응답율 3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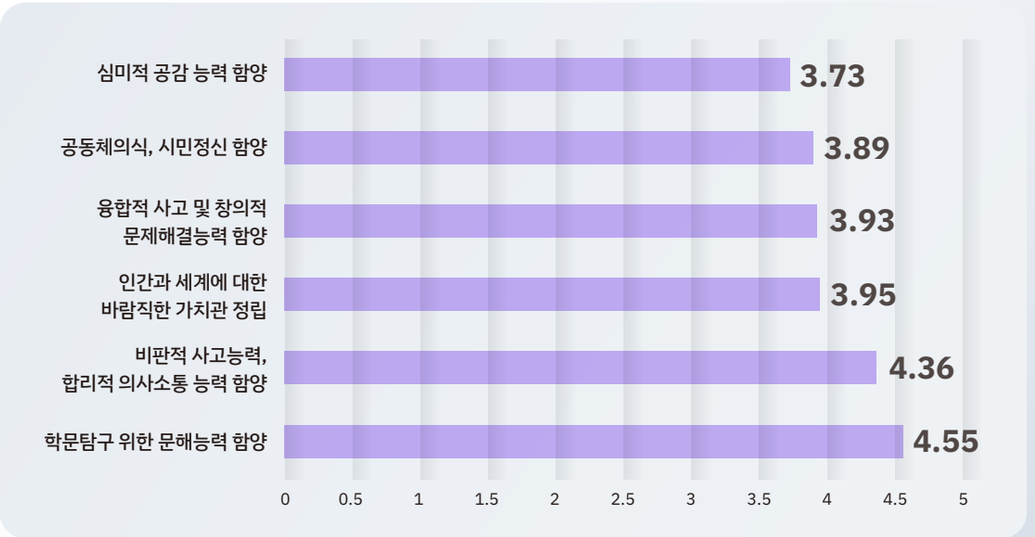
1 방송대 교양교육의 목표 및 영역에 관한 인식

- 방송대 교원은 **방송대 설립 취지와 비전을 반영한 교양교육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평균 4.27/5점)



[그림 1] 교양교육 목표 설정의 필요 정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안한 여섯 가지 교양교육의 목표가 방송대 교양교육에도 필요한지**에 대해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목표가 필요하다고 인식**



[그림 2] 교양교육 목표별 필요 정도

- 세 가지 교양교육 영역(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방송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소양교육'은 보통 정도로 필요 인식

[그림 3] 교양교육 영역별 필요 정도

* **기초교육**: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과 기본적 지적, 언어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교양교육: 인간, 사회, 자연에 관한 학문적 탐구 성과을 이해하고 이의 식견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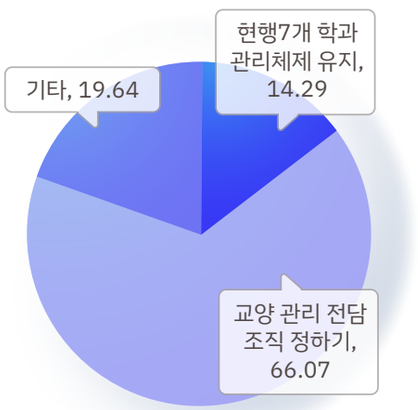
소양교육: 포괄적 의미에서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 교양교육의 목표와 교양교육의 영역에 관한 조사 결과,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과 대학 학습에 필요한 '기초교육'의 필요를 가장 높게 인식.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인간, 사회, 자연에 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문 탐구를 위한 기본적 학업에의 문해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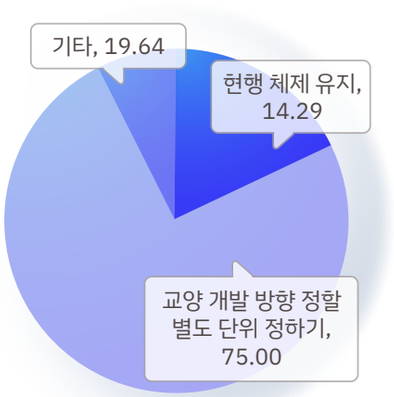
2 방송대 교양교육 운영 및 의사결정의 조직체계에 대한 인식

- 향후 교양교육 운영의 조직체계는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교양교과목을 관리할 전담 조직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66.07%)
- 향후 교양교과목의 개발 관련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별도의 단위를 정해서 전체 교양교과목의 개편, 폐지 및 신규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75.00%)

※(현행) 교양교과목의 개편과 폐지, 신규 개발은 담당교수가 신청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그림 4] 향후 교양교육 조직체계



[그림 5] 향후 교양과목 개발 관련 의사결정 방법

3 시사점 및 제언

- 방송대 교원은 교양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의 비전을 고려한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문해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 또한 방송대 전체 교양교육을 관리하는 전담 단위에서 교양교과목의 개편과 폐지, 신규개발 등을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
- 2023년 11월 제정된 「교양교육원 운영 지침」에는 교수 의견조사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교양교육의 목표와 편성영역, 교과목 개발 및 신설, 폐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이 지침에 의거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을 위해 교양교육원이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자료 출처〉 주형선·손향숙·김재형·구양미·노일경·남나라(2022). 방송대 교양교육 개선방안 연구(22-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